

여름을 피해 여행하는 방법

부산대명여자고등학교

김나현

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는 법을 아는
 가.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.
 그것은 구차하게도 도망치는 것이다. 주
 말이 찾아와 출근할 곳이 없어지면 엄
 마, 아빠는 마트로, 지하철역으로, 에어컨
 이 나오는 버스 정류장으로 흠어진다.
 나는 이불 위에 누워서 그 모습을 지
 켜본다. 불이 꺼진 미술학원에서 물통을
 씻으며 생각했다. 그것도 피서로 쳐준다
 면 우리는 매주 끝내주는 여행을 떠나
 는 걸 텐데. 나는 가족들이 모두 어디
 론가 흠어지고 나면 미술학원으로 향하
 다. 비겁하다는 걸 알고 있다. 내가 가
 진 불행을 자꾸 피하려고만 한다는 건
 비겁하다. 나는 그 비겁함으로 살아왔다.

창문을 보지 않고 별을 그리는 방법은
 은 더운 방 안에 앉아있다가 갑자기
 일어나는 것이다. 창문으로 바람도 들어
 오지 않고 에어컨도 없는 반지하에 앉
 아있으면 허벅지의 맨살이 장판에 끈적
 하게 붙었다. 어린 나는 가족들이 모두
 출근한 날이면 그렇게 앉아있다가 갑자
 기 일어났다. 그러면 눈앞이 까매지면
 서 별이 보였다. 창문으로는 밤하늘이
 보이지 않아서, 나는 별을 그릴 때 꼭
 그렇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했다. 아
 빠가 주머니에 꼬깃꼬깃 넣어오는 전단
 지에, 엄마가 배달하다 남겨오는 신문지
 에 나는 우주 여행을 떠난 사람들을
 그렸다. 나는 그림 속 사람들이 지구에
 있는 무언가를 피해 도망쳐온 것이라는
 사실을 알고 있다. 내 그림 속 별들은
 어쨌든 우리 가족의 피서를 닮았다. 더
 운 집에서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별
 들은 그 짧은 순간에도 희미해졌다 선

명해지기를 반복하며 움직였다. 내 시야
 를 피해 도망치는 그것들은 비겁했다.
 나는 오늘 미술학원을 그만두기로 했
 다.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. 집에
 에어컨도 못 들여놓으면서 학원비를 꼬
 박꼬박 내는 사람들이었다. 그러니까 나
 는 오늘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.
 가족들은 아침부터 더위를 피해 여기저
 기로 사라졌다. 나는 간이용 이젤과 화
 통을 들고 일어섰다. 꽤 오래 쓴 물건
 이라 팔 수 없을 거였지만 학원에 가
 쳐다 놓으면 누군가는 쓰겠지 싶어 네
 임스티커를 모조리 떼어놓았다.
 학원으로 가는 길에 있는 지하철역에
 무더위를 피해 온 사람들이 군데군데
 앉아 있었다. 저 안에 어머니나 아버지가
 있겠지. 살아야 할 곳, 책임져야 할 것
 들을 뒤로 하고 도망친 사람들은 비겁
 했다. 학원 문은 열려 있었지만 아무도
 없었다. 얼마 전 학원 방학을 공지 받

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았
 다. 에어컨 버튼을 눌러봤지만 고장났는
 지 바람 소리가 몇 번 들리다가 다시
 조용해졌다. 나는 학원 구석에 있는 플
 라스틱 의자에 앉았다. 벽에는 취미 반
 학생들의 작품이 붙어 있었다. 하얀 물
 감을 문힌 붓을 튕겨서 그린 밤하늘
 그림이 벽면 한쪽을 빼곡하게 차지했다.
 물감으로 별을 그릴 때는 물감이 여기
 저기로 튀곤 했다. 물감이 원래 있어야
 할 밤하늘이 아닌 풍경에 묻는 경우가
 많았다.

밖은 점점 어두워졌다. 가족들은 집에
 도착했을 것이다. 나는 여전히 어두운
 학원 구석에서 여행을 끝내지 못했다.
 아니, 내가 이 긴 피서를 끝내는 날
 이 오긴 할까. 계속 도망치고 있는 건
 내가 아닌가. 공부를 해도 됐을 걸 왜
 하필 돈 드는 미술을 선택했을까. 에어컨
 도 못사는 집에서 무슨 생각으로.

언 제 비 겁 하 지 않 을 수 있 을 까 . 대 학 에
 합 격 하 면 , 취 직 에 성 공 하 면 , 에 어 컨 바 람
 을 원 할 때 썰 수 있 게 되 면 , 그 때 는
 정 말 비 겁 하 지 않 고 살 수 있 을 까 . 문
 득 별 을 그 리 는 방 법 을 처 음 으 로 배 율
 을 때 가 생 각 냈 다 . 별 은 물 감 문 은 복
 을 튕 겨 서 그 린 다 . 그 게 별 을 그 리 는
 방 법 이 다 . 그 림 밖 으 로 튀 어 나 가 는 물 감
 도 있 지 만 , 그 것 까 지 도 방 법 이 다 . 어 찌 면
 그 것 이 우 리 의 방 식 일 지 도 몰 랐 다 .
 학 원 을 그 만 두 는 것 은 실 패 했 다 . 나 는
 여 행 을 끝 내 지 못 하 고 또 집 으 로 돌 아
 가 고 있 는 것 이 다 . 에 어 컨 이 없 는 , 자 꾸
 나 를 비 겁 하 게 도 망 치 게 만 드 는 집 으 로 .
 나 는 그 령 게 살 아 왔 다 . 또 그 령 기 에 살
 아 갈 것 이 기 도 했 다 . 나 는 아 주 오 랜 만
 에 진 짜 하 늘 을 올 려 다 봤 다 . 별 은 반 짝
 거 린 다 . 별 은 불 안 정 할 수 록 반 짝 인 다 는
 것 을 아 는 가 . 별 빛 이 굴 절 되 는 대 기 가
 불 안 정 할 때 면 희 미 해 졌 다 선 명 해 졌 다 ,

